

---

# 고독사 위험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외

---

2019. 3.

**□ 출장목적**

- 2018년 추진 중인 영국의 외로움 대책 등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발표 이후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정부와 민간의 공동 대응 관련 자료수집 및 인터뷰를 통해 연구수행 및 정책수립에 활용
-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개발 및 인프라 관련 EU InGRID 통계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사례 관련 Expert Workshop 참석 (포용국가 비전 전략 기반 사회정책 통계지표 개발 연구 연계)

**□ 연구과제**

- 고독사 위험 분석 기반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연구
- 포용국가비전 및 전략기반 사회정책 통계지표 개발

**□ 출장자 : 최 현 수 연구위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출장기간 : 2019. 3. 25 (월) ~ 3. 30 (토) (4박 6일)****□ 출장지역**

- 독일 Bonn, BAGSO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 - Organisationen e.V.)
- 독일 Koln, BAFZA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
- 그리스 Athens, Panteion University

## □ 주요 일정

출장일		국가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일정 및 논의사항
1일차	19.03.25(월)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국(인천-Frankfurt)</li> </ul>
2일차	19.03.26(화)	독일 Bonn	BAGSO	Lena Dor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연구동향 및 정책 대응방안 관련 자료 수집 및 인터뷰</li> </ul>
3일차	19.03.27(수)	독일 Köln - 그리스 Athens	BAFZA	Peter Schloss- ma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의 외로움 대응 정책 추진 이후 독일 정부와 의회의 정책 대응방안 추진 관련 논의 및 주요내용 관련 자료 수집 및 인터뷰</li> <li>국가 이동 (Frankfurt-Athens)</li> </ul>
4일차	19.03.28(목)	그리스 Athens	Panteion University	Constantine Dimoulas, Robert Anderson, Daniel Nestic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InGRID 주최하는 포용적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법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전문가 Workshop 참석(1일차)</li> </ul>
5일차	19.03.29(금)	그리스 Athens	Panteion University	Ine Smits, Stephanie Steinmatz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InGRID 주최하는 포용적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법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전문가 Workshop 참석(2일차)</li> </ul>
5~6일차	19.03.29(금) ~ 03.30(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국(Athens-인천)</li> <li>19.03.30 인천 도착</li> </ul>

- 가. 2018년 추진 중인 영국의 외로움 대책 등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발표 이후 독일의 언론 동향 및 정부 및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 동향
- 영국의 외로움 대책 발표 이후 독일 의회 및 정치인들 역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대책을 촉구함
    - 독일 의원들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영국 총리가 외로움 장관을 지명한 최근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사회민주당(SPD) 의원 Karl Lauterbach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심각한 흡연만큼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독일의 보건부가 나서서 이러한 외로움에 대한 대응 관련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
    - 기독교 민주당(CDU)의 정치가인 Marcus Weinberg 역시 사람들이 약자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외로움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독일 의회와 정부의 외로움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노인들의 외로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관심을 바탕으로 영국의 외로움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 지명과 관련 정책 발표에 의해 더욱 주목받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영국과 같이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국민들의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여전히 청년 또는 중장년층 보다는 노인들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담당부처인 BMFSFJ(Bundesministerin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경우 민간 단체인 BAGSO와 공동으로 2019년 3월 18~19일 노인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사회 참여와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서 연방 및 지방정부, 민간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결과 및 대응 사례를 공유함

- 컨퍼런스의 핵심적인 주제는 “Einsam? Zweisam? Gemeinsam!”임

- 연방 사회서비스부(BMFSFJ, Bundesministerin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장관 Franziska Giffey 기조연설 주요내용

- 외로움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며, 특히 노인이 영향을 많이 받고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노년기 외로움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외롭거나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하며, 이것은 개인 누구나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수행 할 수 있음. 그러나 외로움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역시 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필요함

- 사망, 질병 및 빈곤과 같은 치명적 상황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외로움에는 다양한 모습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솔루션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와 헌신 역시 개인을 돌보고 사회를 더욱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음

- BAGSO의 Franz Müntefering 역시 도시와 농촌, 주거 지역 또는 모바일 등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참여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필요하며, 특히 자원봉사 분야 등 지역사회에의 열정과 역량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음

○ 핵심 의제 및 주요 포럼 영역

- (포럼 1)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와 함의
- (포럼 2)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새로운 방향
- (포럼 3) 유럽 국가의 전략 및 사례
- (포럼 4)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 및 사례
- (포럼 5)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응한 사례 연구

## <참고> 영국 외로움 대응을 위한 사회적 관계 강화 정책 추진배경 및 경과

-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 (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 2016년 6월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도중 피살된 노동당 하원의원 Jo Cox의 죽음 이후, 그녀가 열정적으로 관여하던 '외로움' 문제를 Jo Cox 재단에서 이어나갔음
  - Jo Cox와 함께 위원회를 만들었던 Seema Kennedy, Rachel Reeves 하원의원 주도로,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는 2017년 13개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 「Comba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를 2017년말 발표하였으며, 생애주기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외로움에 대한 측정과 대책을 강조함
- 영국 정부는 '외로움'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cross-government approach)을 주도할 책임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Tracey Crouch를 임명
  -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주도한 연구의 정책제언에 따라, 외로움 해결을 위한 '책임 장관'에 스포츠와 시민사회부(Minister for Sport and Civil Society) 장관 Tracey Crouch을 2018년 1월 18일 임명함
- 그 후 범정부 종합계획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을 2018년 10월 15일 발표함

## <참고> 외로움 대응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주요 내용

### □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 외로움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긴급한 공공보건의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게 되었음
  - 외로움은 흡연 또는 비만과 같은 수준으로 이른 죽음(early death), 심혈관 질환, 우울, 인지저하, 알츠하이머 발병과 관계가 있으며, 5~18%의 영국 성인들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비전은 국가 전체를 개인들이 더 강력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며, 특히 외로움의 위험이 커지는 취약한 시기에 가족, 친구, 지역사회가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임
  - 기관들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적 요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외로움이 낙인이나 수치심 없이 이해되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함
  - 이러한 국가가 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며, 정부 홀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더욱 사회적으로 연결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강력한 비전을 제시함
- 종합계획은 정부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전환점을 제시함
  - 이것은 2017년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에 모인 많은 기관과 개인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며,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망(social connections)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계획임
  - 이는 더욱 통합적이고(cohesive), 연결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의 출발이며, 사회 전반에서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특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음



- 종합계획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거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공, 민간, 비영리 영역들을 기반으로 하여, 기반 시설과 문화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살펴봄
  -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다양한 외로움에 대응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 장관직을 2018년 임명함으로써 ‘외로움’이라는 이슈와 정책적 의제를 선도하게 됨
    - 이러한 책임 장관직 임명은 전 세계적 관심을 받았으며, 외로움이 생애주기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제시함
  - 2018년 1월, 총리는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의 작업을 바탕으로, 정부에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제언들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음
    - 2018년 6월, 총리는 2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발표하였고, 이 중, 1천 5백만 파운드는 Building Connections Fund로 비영리, 지역사회, 기부 기관들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
    - 이는 정부가 시민 사회 번영을 위해 수립한 또 다른 종합계획인, ‘Civil Society Strategy’의 큰 비전을 보완하는 것이기도 함
  - 그 이후로, 영국 총리는 고령화 사회의 도전(Ageing Society Grand Challenge)을 정부의 산업 계획 중 일부로 발표하였으며, NHS의 장기적인 계획의 새로운 관점으로 ‘건강 악화에 대한 예방’을 발표함
    - 정부의 ‘외로움’에 대한 대책은 이러한 두 가지 정책에도 기여할 것임
- 종합계획의 수립
- 종합계획은 Jo Cox 외로움대책위원회의 연구를 기반으로 넓은 범위의 파트너 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 6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정부가 다양한 실증적 ‘근거’를 요청하였을 때(Call for evidence), 400개 이상의 응답을 받음

- 정부는 자선기관, 사업체, 공공영역 지도자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그룹과 협력한 외로움행동그룹(Loneliness Action Group)과 긴밀하게 작업하였으며, 종합계획을 알리고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자선기관, 연구기관, 지자체, 보건 의료 기관, 사업체, 종교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통찰력 있는 의견들을 공유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하였음

□ 종합계획의 주요 원칙

- 파트너쉽과 협력 :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사회와 다양한 민간 영역 등이 협력하고, 정부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함
- 실험, 반복, 학습 의지 :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실증적 근거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험과 반복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부처 간 교류 및 연계, 접근성 보장 : 외로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함
- 중요한 위기 상황에 집중 : 사람들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특정한 위기 상황과 지점에 집중함
  -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한 근거는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지역 사회 생활 조사(Community Life Survey)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
- 개인화된 접근과 지역사회 중심 대책의 중요성
  - 외로움이 매우 복잡하고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고려해보면, 개인화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방안 마련은 매우 핵심적임

- 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 : 잉글랜드 지역에 한정되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동료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정책을 참고함

□ 주체별 역할 :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의 역할

- 외로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지지하기 위해 모두가 행동을 취해야 하고, 외로움을 각 업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 정부,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 영역을 포함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족, 개인의 책임도 중요함
-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외로움 대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강한 사회적 웰빙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캠페인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와 정보를 개발함
  - Loneliness Action Group과 긴밀하게 행동하고, 멤버들이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보장함
  - 정부는 정책 입안을 통해 변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각 주체가 외로움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 지방정부
  - 지역사회의 웰빙에 대해 의사결정과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할지 고민할 것을 요구함
  - 지역사회에서 Health and Wellbeing board와 다른 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간과 교통을 둘러싼 실용적 문제를 해결하고,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보건 및 공공 서비스 기관(Health and other public services)
  - 사람들의 사회적 웰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그들을 찾아내고,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함
  -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실천방법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실천함
- 기업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
  - 직원들이 직장 내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자원봉사 영역

-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이미 외로움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강하고, 통합된 지역사회를 창조하고, 개인과 집단을 소외시키는 장애물에 도전할 수 있음
- 서비스의 전달을 통해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외로움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스킬과 지식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 외로움의 도전에 대한 가장 효과적 정답은 가족, 친구, 종교 집단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포함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열려있도록 하는 것임
- 개인들은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통해 더욱 연결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 이웃들을 돌보고 연계할 수 있음.
- 지역사회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회복력을 길러주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정부 역할의 핵심 (The focus of government's work)

-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는 매우 사적인 것으로, 모두가 가끔씩 외로움을 느끼지만, 사람들이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의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과 함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함
  - 종합계획은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춤
-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3가지 목적과 연계됨
  - (1) 외로움에 대한 근거 기반을 마련  
(Building the evidence base on loneliness)
    - '근거 기반(evidence base)'를 통해, 무엇이 외로움을 야기하는지, 외로움의 영향과 무엇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종합계획은 기존에 제시

된 근거를 평가함(assessment)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현재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어떻게 활용되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함
  - 통계청은 “얼마나 자주 외로우십니까?(‘How often do you feel lonely?’)라는 하나의 질문과 UCLA의 3개의 성인을 위한 문항을 제안하였으며, 아동을 위한 지표는 별도 개발하여, 2018년 말 발표. 또한 데이터의 연계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문항을 활용하여 외로움을 측정하도록 장려
  - 웰빙에 대한 국책연구소(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의 외로움 해결방안을 위한 개입에 대한 리뷰를 제공함. 연구소는 선행연구와 발간되지 않은 자료를 통해, 영국과 세계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춘 개입방법’을 찾았으며, 이에 대다수 연구들이 55세 이상 인구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췄으며, 각 연령대별로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 정부는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세부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평가 방법을 개발할 것임.
- (2)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끌어냄(Driving a lasting shift in policy-making)
- ‘외로움’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요인들을 파악하고 여러 정부 정책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의 사회적 웰빙과 회복력을 지지할 수 있게 함
  - 종합계획은 인생의 특정 위기 지점(trigger points)에서 높아지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개입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편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포함함
  - 다양한 정책 결정분야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할 수 있는지 포함함
- (3)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논의를 촉진시킴  
(Catalyzing a national conversation on loneliness)
- 외로움의 영향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에 대해 국가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신건강도 점점 더 그러하듯이, 우리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connections)을 돌보며, 그것이 우리의 웰빙에 중요함을 이해함

- Jo Cox 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중요한 작업을 기반으로, 어떻게 정부가 다른 주체들과 사회적 변화를 모색할지 제시함
- 종합계획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정부가 지방정부, 기업, 보건·공공서비스, 자원봉사 영역, 그리고 지역사회와 개인들이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지원하도록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부는 종합계획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로움을 줄이고, 더 연결된 사회를 지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을 위해 정부가 다른 주체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함
  - 종합계획은 새로운 측정도구와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로움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약속을 제시함
- 외로움 대책의 평가 : 성공의 측정
  -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접근의 성공은 정부의 '외로움 척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측정될 것이며, 외로움 현상의 감소를 추진할 것임
  -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외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연령대 및 집단별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외로움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법,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각 목표에 대해 측정도구를 만들었으며, 매년 이 목표의 진행상황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이 계획을 수행하는 정책의 실행에 대한 업데이트와 추가적 정책의 개발이 담긴 연간 진행 보고서 (annual progress report)를 발간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각 부처들은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모니터링 되고, 성공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척도를 개발할 예정임



나. 민사복무 이후 독일 지역사회 자원봉사 운영 및 역할과 시사점  
-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관계 강화 관련 역할 및 사회복지제도  
개편방향 관련 시사점

- 독일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대체복무로서 민사복무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담당하는 민사복무청(BAZ)을 연방정부 내 사회서비스 전담부처인 BMFSFJ 산하 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함
- 2011년 모병제 전환까지 약 50년간 사회복지요원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보조 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독일의 노동시장 인력수급에 있어 미래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의 직업탐색 및 긍정적인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지님
  - 여성의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회복지시설과의 상호 계약에 따라 민사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2008년부터 기존의 공익근무제도를 전환하여 현역 이외의 보충역 병역자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분야 기관과 시설 중심으로 복무하도록 배치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 역할을 부여함
- 참여정부 이후,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민간기관 위탁 중심의 낮은 수준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필요성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사회복지요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에 필요한 2주간의 직무교육을 도입함
- 2008년 사회복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민사복무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 및 직무교육, 복무감독관 등을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하였으나, 당시 사회서비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달리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민사복무청 조직을 벤치마킹(사회서비스 부처 산하 조직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함으로써 현행 병무청 조직 및 인력이 만들어지고 보건복지부 등과 분리된 구조로 운영됨

○ 2008년 이후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요원 배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심화 직무교육 등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역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됨에 따라 사회복지요원 관련 인건비 및 교육 예산이 확대됨

□ 그러나, 독일의 경우 2011년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며 재정지원을 통해 민사복무제도를 자원봉사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형태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로움 대응 및 사회적 관계망 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개편을 위해서 독일 전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독일의 대체복무로 운영된 민사복무제도와 전담 조직인 민사복무청을 민간 자원봉사의 개념을 확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BFD)와 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BAFZA)으로 전환하여 사회서비스 담당 부처 산하에서 이를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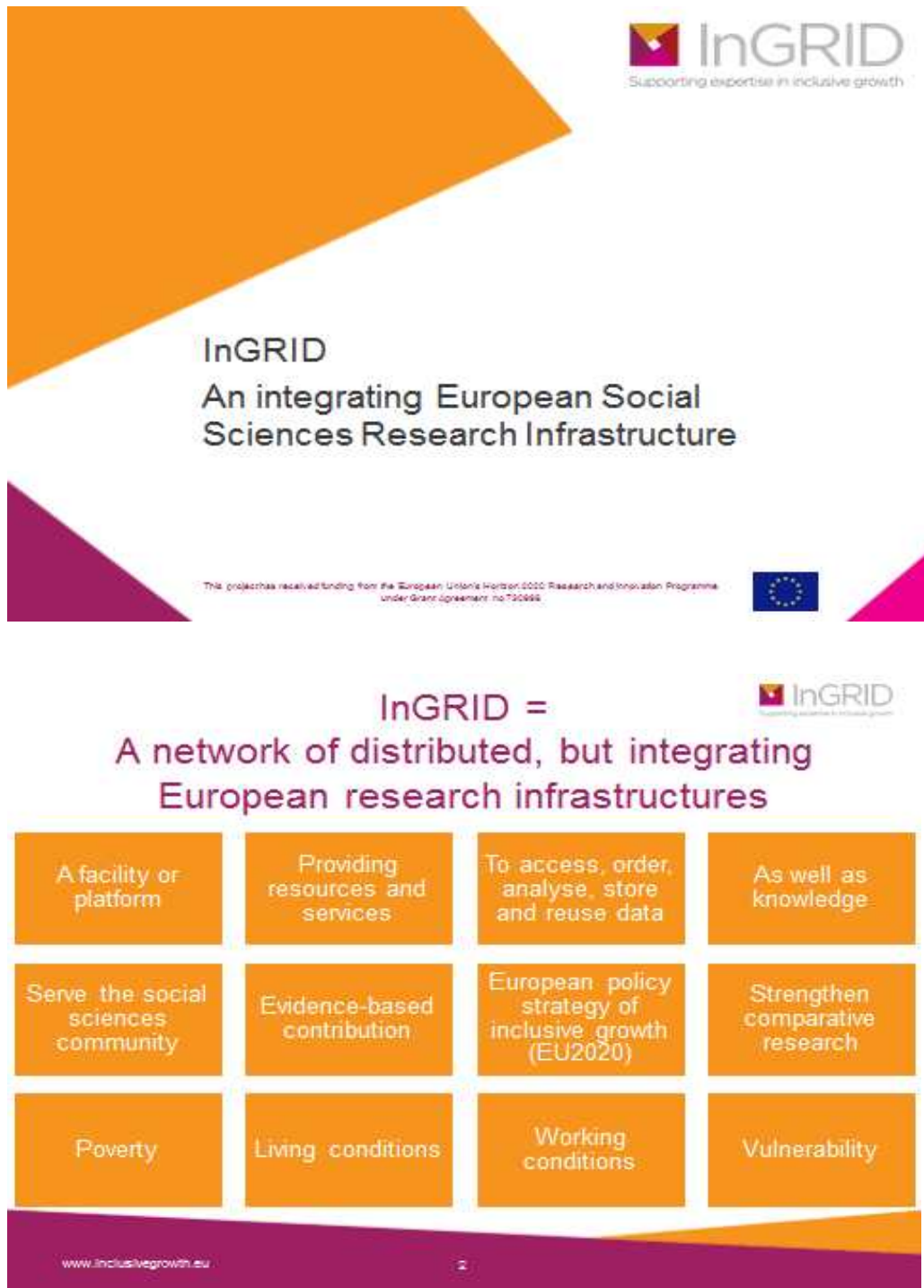
- 사회복지요원 관련 예산(인건비와 교통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제공 보조 인력으로서 역할을 자유로운 선택과 계약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일자리(BFD)로 전환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약 400유로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감소 전망에 따라서 현재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기관 및 시설에서 사회복지요원이 담당한 역할 평가 및 대체 필요인력 규모와 인건비 및 교육예산 전환 가능성 검토 필요



## 다. EU InGRID Project 관련 Expert Workshop

### □ EU InGrid Project 개요



The slide features a large orange arrow pointing right, with the InGRID logo and tagline 'Supporting expertise in inclusive growth' in the top right. The main title 'InGRID An integrating European Social Sciences Research Infrastructure' is centered. At the bottom, there is a small text line about funding from the European Union's Horizon 2020 program and the European Union f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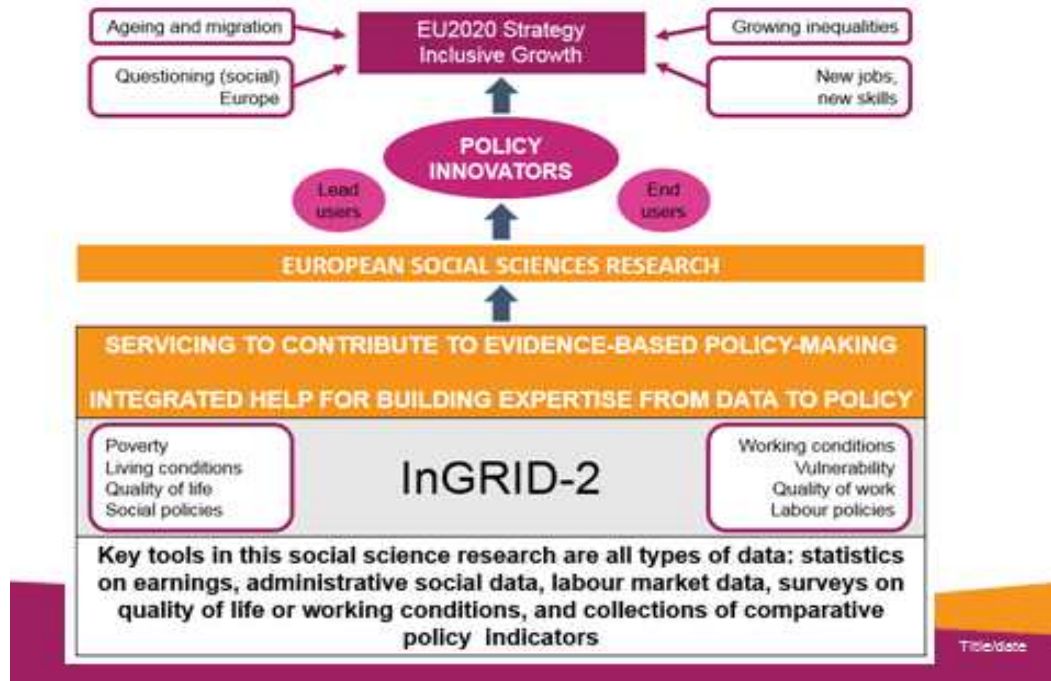
**InGRID**  
An integrating European Social Sciences Research Infrastructure

This project has received funding from the European Union's Horizon 2020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under Grant agreement no 732099.

**InGRID =**  
A network of distributed, but integrating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s

A facility or platform	Providing resources and services	To access, order, analyse, store and reuse data	As well as knowledge
Serve the social sciences community	Evidence-based contribution	European policy strategy of inclusive growth (EU2020)	Strengthen comparative research
Poverty	Living conditions	Working conditions	Vulnerability

www.inclusivegrowth.eu 2



## InGRID-2



□ 주제 : Extending InGRID integrated dataset and tools on vulnerable groups with employment condition data

□ 주요 프로그램

## Programme

### 28 March 2019

Start at 12:00

Welcome and short presentation of InGRID-2

**Session I: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vulnerable groups**

**Session II: Precarious employment and quality of life of vulnerable groups**

**Session III: GAPS In Research infrastructure concerning the employment and living conditions of vulnerable groups in the Balkan countries**

### 29 March 2019

09:30

**Session IV: Precarious employment and career prospects of vulnerable groups**

**Session V: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graduates from tertiary education after the 2008 crisis**

13:00

End of the workshop

□ 주요 발표내용

<Experts' Workshop> "Extending InGRID integrated datasets and tools on vulnerable groups with employment conditions data"

○ Session : Poverty

- Alba Kruja, "Measuring Poverty: A Survey of Concepts and Methods. Evidence"
- Danijel Nestić, "Poverty among minimum wage workers in Croatia"
- Zinaida Salibekyan, "Job Quality and Workplace Adjustments during the Crisis: Evidence from French linked employer-employee data"

○ Session : Vulnerability & Working Conditions

- Olympia Kaminioti, "More and less satisfied workers: which are the differentiating factors?"
- Andrea Gatto, "What is energy vulnerability? Data imputation implications on composite indicators"
- Andreea Minea, "Invitation Discrimination and Hiring Discrimination"

○ Session : Unemployment

- Lida Aminian, "How job satisfaction and unemployment influences the residents' overall quality of life (an empirical research among residents of a Dutch city)"
- Aggeliki Yfanti, "Investigating the social profile of unemployment when applying alternative supplementary measures of the unemployment rate to regions: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for Greece, 2008-2015"
- Anastasia Charalambi, "Wellbeing and unemployment"

- Aggeliki Kazani, “Measuring unemployment and youth unemployment rates in Greece: differences between ELSTAT & OAED, 2010-2018”

○ Session : Precariousness

- Ruta Braziene, “Precarious employment across the Baltic States and Poland: Theoretical Explanations, Empirical Evidence and Social Policy Responses”
- Delia Badoi, “Normalising precariousness through the flexible work - A conceptual model proposal for the precarization of early-stage workers in science and research”
- Evangelos Chaikalis-Petritsis and Konstantina Baskozou, “The Horizon of Homelessness in Greece: A Vertical Matter”

○ Session : Youths

- Julia Weiß, “Job quality of young adults in times of economic turbulences”
- Mariana Crismaru, “Youth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NEET) in the Republic of Moldova: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 Blagica Novkovska, “How to Bridge Gaps in Datasets Leading to Better Future of Youth”